

금호타이어, 1199명 정리하고 통보

노사협상 결렬 이후 갈등 심화 ... 2월8일 파업 찬반투표로 타결 기대

노사협상이 결렬된 금호타이어가 예정대로 정리하고 예정자 명단을 개인에게 통보하면서 노조가 농성에 들어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3월3일 오후 193명의 정리하고 대상자와 1006명에 대한 도급화 계획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하고 대상자에게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괄 통보했다.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4월2일자로 정리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노조는 전남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한데 이어 조합원 행동지침을 통해 준법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상무집행위원은 밤샘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5일과 6일 조합원 집회를 통해 노조의 입장과 앞으로의 투쟁계획 등을 설명하고 8일과 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16일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노사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호타이어도 노조가 협상에 응하면 제시안을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리하고 예고 통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노조는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는 등 예정된 일정대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회사 측이 교섭을 요청해오면 언제든지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조는 기본급 10% 삭감, 상여금 100% 반납, 복리후생비 중단 및 폐지, 자연감소로 발생한 311명(2010-2012 정년 예정자)에 대한 단계적 외주화, 적정인원(T/O) 축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상안을 내놓았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기본급 20% 삭감, 경영상 해고, 외주화(아웃소싱), 임금 3년간 동결, 현금성 수당 삭제 등을 핵심으로 제시했으며 상여금 200% 삭감을 수용하면 인력구조조정을 철회한다는 수정안을 내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렬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03>